

화학 첨가물 제로, 100% 우리밀빵 인기

학사농장 16개월 산고 끝 개발 성공 “건강에 좋은 빵” 소비자 반응 뜨거워

“화학첨가물이 제로(zero)인, 먹으면 건강해지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유기능 생산자 조직인 영농조합 학사농장(대표 강웅)이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첨가물 ‘우리밀빵’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화학 첨가물이 제로인 빵=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 의해 계약재배한 우리 밀을 100% 사용하고 상온으로 나와 있는 색소와 향료 등과 마가린 유탄제, 중탄산나트륨이 함유된 베이킹파우더, 가짜 생크림, 전지분유, 물엿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신 천연 이스트, 유기능 사탕수수 원당, 죽염, 국산 우유 생크림, 유기능 계란, 발효 솔, 쌀조청 등 친환경 원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입산으로는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몬드가 유일하다.

강 대표가 류호선(41) 제빵사와 함께 우리밀빵 만들기에 도전한 것은 16개월 전.

강 대표는 “우리밀 빵은 ‘우리밀만으로는 빵을 만들 수 없다’라는 고정

관념을 깨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며 “무엇을 넣는냐가 아니라 무엇을 빼야 하는 가를 고민했다. ‘초코 머핀’을 만들어보면 커피에도 첨가물이 들어 있어 버려야 했다. 1년여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버린 빵만 해도 몇 트럭 분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밀만으로 반죽을 하면 동치미 지 않고 두부처럼 풀어져 버리곤 하는 문제를 이들은 ‘냉장 숙성’에서 해답을 찾았다. 햇우리밀이 산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착성을 지닌 ‘글루텐’(gluten)이 저질로 만들어진다는 부연 설명이다. 제빵과정은 우선 반죽을 한 후 1차 발효→숙성→성형→2차 발효→분할·벤치타입→굽기 순으로 진행된다.

◇건강에 좋은 빵만들기 나서=반면 시중 제빵점에서는 점착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밀 30%와 수입밀 70% 가량을 섞어 사용하거나 ‘글루텐’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값비싼 천연 재료가 아닌 비슷한 맛을 내는 ‘이미테이션’(imitation)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



강웅(왼쪽) 학사농장 대표와 류호선 제빵사가 갓 구워진 모닝빵을 살펴보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먹는 빵에 어떠한 유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사농장이 지난 6월부터 본격 생산하는 우리밀빵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때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 공동 구매를 진행한 결과 400여 개나 팔릴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강 대표는 “이전에 시중에 나와 있는 빵을 먹으면 배가 아팠다. 빵 속에 각종 화학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밀빵은 자체 발효로 만든 빵에서 소비자들이 ‘맛

이 깔끔하고, 속이 편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학사농장은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대주 피오레 6단지아파트 앞에 위치한 학사농장 수완점에서 매일 우리밀 빵인 ‘유기데이(62day) 베이커리’를 만들어 시내 각 학사농장 매장에 공급한다. 현재 만드는 제품은 유기능 잡곡식빵·카스테라·단팥빵·소보루·초코머핀 등 25종과 케익, 제과류. 가격은 재료비 등 높은 생산원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밀빵 대중화를 위해 일반 빵과 비슷하게 책정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광주에 장흥 한우 백화점 수완지구에 내년 3월 개점

내년 봄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에 장흥 한우 백화점이 문을 연다. <조감도>

장흥군은 8일 이명을 장흥군수를 비롯해 한우 주민주식회사 문현성 대표와 주주, 관련 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백화점 착공식을 가졌다.

한우백화점은 모두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 2429㎡에 지상 3층 규모의 육가공 시설, 식당, 판매점을 갖추게 되며, 내년 3~4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10월 ‘정남진 장흥한우’ 상표 이미지를 높이고 산지유통의 주도적 역할을 전담하는 한우주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유통망 구축을 추진해 왔다.

‘정남진 장흥한우’는 산지 직거래와 토요시장 판매를 통해 연간 5000여 마리가 소비되고 있으며, 고급육 생산도(1등급 이상) 74%를 차지하는 등 전국 한우산업의 대표 상표로 자리매김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한우 주민주식회사의 역할이 정착되면 한우산



업 유통의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우 주민주식회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담양군민들이 최근 열린 ‘제1회 자전거길 준공기념 군민 자전거 라이딩’ 행사에 참여해 영산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추성 경기장에서 출발해 관방제림~강정리 쉼터를 돌아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20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rg@

인간의 힘만으로 날아보자

13일 고흥서 인간동력 항공기 경진대회

“모터나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인간의 힘만으로 하늘을 날아보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13일 고흥 항공센터 활주로에서 사람의 힘으로 지상을 활주·이륙해 비행하는 ‘인간동력 항공기(사진) 시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 이카루스팀 등 국내 항공 관련 대학생 11개 팀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400m 거리를 가장 짧은 시간에 날아간 비행팀이 1위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1등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상과 15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고흥군은 당일 관람객의 교통편의



를 위해 고흥읍사무소에서 행사장까지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며 “최첨단 우주항공시설이 집적화된 고흥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고흥군이 미래 항공산업 발전에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광양에 불산 공장 추진 파문

영국계 회사 설립 MOU...환경단체 반발

경북 구미공단 불산(HF·불화수소)가스 유출 사고여파가 확산되고 가운데 광양지역에 대규모 불산 제조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영국계 칼루즈(Kaluz)그룹의 자회사인 멕시켄과 광양항 서측 배후부지 13만㎡에 불산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멕시켄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로 총 3억원을 투입해 1단계 때 연간 9만t, 2단계로 4만5천t을 추가 생산하는 등 연간 총 13만5000t의 불산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는 공장 부지에 대한 관리권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이관

받기로 해 이번 멕시켄과 MOU를 체결할 수 있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멕시켄이 들어서면 200명의 고용창출, 연간 6000 TEU 수출 물동량 발생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멕시켄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최종 공장 건설여부는 아직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불산 제조 공장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

광양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불산공장이 들어설 곳은 주변에 광양제철 등 공장이 밀집해 있고 시내 인구 밀집 지역과도 가까워 사고시 심각한 사태가 예상된다”며 공장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목포 북항 씨푸드 타운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목포시 북항에 수산물 전문음식단지인 씨푸드 타운(Sea food town)이 문을 연다.

시는 내년 6월 씨푸드 타운 개점을 목표로 이달중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공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씨푸드 타운은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부지 부지 9900㎡에 2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립되며, 수산물 전문 음식점과 해수장·위탁시설·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씨푸드 타운이 건립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내달 9~11일 벌교 꼬막축제

‘제11회 벌교 꼬막축제’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벌교 제일교 특설무대와 벌교읍 대포리 갯벌에서 열린다.

벌교꼬막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꼬막축제는 ‘1등 꼬막, 1등 문화’라는 별칭을 주제로 먹거리는 어물제, 보성소리 명창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갯벌인 대포리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축제 첫째 날인 9일에는 해병대 군악을 시작으로 꼬막을 넣은 대형꼬막 비빔밥 시식행사와 농악놀이, 민속 율놀이, 풍바 공연 등이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꼬막던지기, 꼬막무게 퀴즈대회, 꼬막끼기 경연과 널배타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불꽃쇼,

연예인 축하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벌교가 중심무대인 소설 ‘태백산맥’을 알릴 수 있는 문학기행, 태백산맥 OX퀴즈, 벌교흔을 기리고 벌교읍민의 화합을 다지는 어물제, 보성소리 명창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갯벌인 대포리 일원에서는 대포리 갯구렁이와 농악놀이, 갯벌체험 행사가 축제기간 열린다.

보성군은 이번 축제를 활용해 지역의 문화와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입 증대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충장로 1가입구 탐앤탐스 8층

6기버너 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이버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 점심 ₩12,900
- 평일 저녁 ₩14,900
- 주말, 공휴일 ₩15,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 ~ 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주최인사 : ●송윤치 아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인산 1주차장)
●송합치 아용시-인산 2주차장 이용(인산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